

부산시립무용단 제 52회 정기공연
The 52rd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WAR

전쟁으로 평화를 일구는 춤의 형식

안무·구성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훈련지도	이윤혜
대본·연출	황해순
드라마트루기	최찬열
음악작곡	서상환
의상	민천홍
씨노그래피	백철호
무대어시스트	임훈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2005.5.26(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인터넷예매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www.koreanfolkdance.com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작 품 의 도

21세기, 인류는 동서 간, 인종 간, 종교 간의 갈등으로 한층 대립의 폭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국지적인 전쟁의 발발과 함께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에게 있어 전쟁이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파괴와 약탈과 광기와 혼돈과 불모의 대지와 승리자의 음흉한 미소 같은 것들이다. 전쟁은 더 이상 믿음의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더 이상 평화의 꽃이 만발하지 않도록 믿음을 조롱하고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황폐한 영혼은 더 이상 어떤 꿈도 품을 수 없다.

광기의 역사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생명은 고귀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하나 조차도, 자유, 화해, 평화, 상생, 인권, 생명, 생태, 이런 인류영원이 살아 숨 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은 어두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을 춤 언어로 형상화하되 전쟁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위주의 사실 재현적 극무용이 아니라, 전쟁의 그늘 속에서도 평화를 갈구하는 민중들의 강렬한 생명에너지를 이미지화 하는 춤극이다.

작 품 구 성

1막 : 붉은 해

인종, 사상, 종교,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붉게 지는 노을, 대자연의 장엄함을 노래하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체투지 민중들의 생명에너지...

2막 : 검은 구름

전쟁의 카오스, 반목과 대립의 혼란 속에 새까맣게 몰려오는 폭격기, 비 오듯 쏟아지는 폭탄의 섬광 속 절규하는 민중, 대지의 어머니가 피 흘리고 눈물짓는 암울한 현실에서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3막 : 하얀 전쟁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들의 학살로, 무차별 폭격으로 하얗게 재로 남은 죄 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죽음 또 죽음들, 혼백을 잃은 목 없는 여인들의 한판 살풀이춤이 흩날리고;;

4막 : 회색 갈증

전쟁으로 인하여 뿌리 뽑힌 삶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모래 바람 속 구원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난행렬들, 몸과 마음의 갈증을 풀어줄 구원의 손길은 아득하기만 하고 남은 것은 눈물과 고통, 영혼을 잃은 비참한 존재뿐인 것을...

5막 : 폭우 속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황폐화된 대지에 억수 같은 씻김의 비가 내리고, 폭격의 잔해, 포화의 뒤안길로 씻김으로 거듭난 여인과 아이들의 새로운 발 디딤, 절망을 걷고 담을 허물며 새 생명 초록 평화의 싹을 틔우고...

